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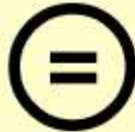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선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이미지 재구성에 의한 반복효과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양 호 정

이미지 재구성에 의한 반복효과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 선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양 호 정

인 준 서

양호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예술은 작가의 정신적 산물로, 그 본질에 있어 인간 내면세계인 정신적 감수성과 그것을 둘러싼 외적 물질과의 융합이 작품을 통해 투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작품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작가의 주관적 세계관을 탄생시킨 언어이다. 이 언어를 통해 삶에서 제기되는 작가 자신의 의문과 해답을 얻는 과정을 작품 속에 표현하여 사람과 소통의 연결고리가 됨과 동시에 그들에게 나름의 가능성을 찾게 하여 준다.

예술을 통하여 작가는 자신과 삶, 타인과의 관계 등을 표현하고 자기화하며 삶에서 파생되는 여러 체험을 반영한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현실적인 감정 뿐 아니라 그가 인식하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감정 전체에 관한 것이다. 신체 밖에서의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모습을 감각적이고도 개성적인 법칙에 따라 흡수하여 이미지로 생산한다.

예술 작품에서 생산의 의미는 시각의 착시에서 시작해 작가의 개성을 통해 표현되어 나타내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 의한 내면으로의 소통이 중요할 때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에 쫓겨 근본보다는 형상의 외적 부분에만 끌려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단절된 상황 속에서 작가는 주관적 소통의 가능성을 삶의 관계들 속에서 얻은 무한한 애깃거리로 열어둠으로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자아관을 탄생시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정된 관계의 시각 속에서 외형적 행위에 의하여 파악하는 1차적인 것에서 연구자의 개성과 감정이 섞인 주관적 잠재의식을 통한 2차적 발전을 거듭해 형상의 재해석으로 표현하였다.

외적세계 속에서 자아와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포착하여 예술가의

주관적 해석이 드러나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개성’을 내포한 예술로서의 시작을 제시한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다양하고도 애매모호한 관계들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객관을 지향하여 형태를 그리지는 않았다. 그저 눈에 비친 인상을 현실에 존재하는 형태가 아닌 본인의 자아와 융합하여 개성이 담긴 형상으로 재탄생을 이뤄 반복(反復) 행위로 표현하였다.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순수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끊임없이 복제하고 반복적으로 대상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상징의미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흔히 접하는 주위의 관계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아 본인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해 반복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작은 일상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 독특한 세계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연구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이론적 연구.....	3
1)현대 미술(現代 美術)에서 반복행위.....	3
2)시각과 반복행위의 관계.....	6
3)반복을 이용한 이미지 형상화.....	8
2.기법적 연구.....	11
1)형상(形象)의 재구성화.....	11
2)색을 통한 이미지 표현.....	14
3)선(線)으로부터의 형상.....	16
III. 작품분석.....	18
IV. 결론.....	32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이미지 읽기, 130x162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2】 이미지 읽기, 90x1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6

【작품 3】 이미지 읽기, 130x162cm, 장지에 혼합재료, 2007

【작품 4】 이미지 읽기, 130x162cm, 장지에 혼합재료, 2007

【작품 5】 이미지 읽기, 90x130cm, 장지에 혼합재료, 2007

【작품 6】 이미지 읽기, 20x100cm, 비단에 혼합재료, 2007

I. 서론

오랜 예술의 역사가 그래왔듯 예술작품은 여전히 사회적 삶을 반영(反映)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사회적 삶을 반영하는 예술가는 어떠한가 하는 것인가? 이는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쉽게 답을 내어놓기 어려운 것으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이기도 하다.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 각자의 눈에 비치는 대상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에 노출(露出)되어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의 “당신들은 보고 있어도 보고 있지 않다. 그저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표면적인 것 배후에 숨어 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아라.”라고 말했듯 ‘본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精神)의 작용이 시각에 집중되는 순간에 투영(投影)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본인의 작업은 ‘보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관계에서 얻은 본인만의 ‘이미지 읽기’로 일정한 반복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반복행위는 화면 안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시각적의미를 부여하여 자발적이고 자기화 된 행동으로 표현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새로운 언어로의 시작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본인은 관계의 어우러짐 속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화면위의 의식인 듯 반복적 행위로 표현해, 이미지들의 가벼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색으로의 느낌과 선의 표현만으로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행위를 이용하여 형상화(形象化)한 이미지들의 소재를 먼 곳에서 찾지 않았으며 그 대상을 어떻게 재해석 할 것인가, 그리고 현대 미술에서 보여주는 반복의 의미를 논하여 작품에서 보여 지는 반복행위자

체와 시각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와 본연구자만의 시각으로 그들의 개성을 찾아 하나의 이미지만을 가진 존재로 형상화 시킨 것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본인만의 이미지로 상징화 시켜 반복 표현한 것을 근본적으로는 동양화 전통성의 정신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조형요소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또한 표현기법으로는 '개성'을 바탕으로 형상의 재구성화를 파악하고 조형요소의 기본이 되는 선(線)으로의 형상을 재현해 봄과 동시에 색채를 통한 이미지의 의미를 연구했다.

작품분석에서는 위의 연구로 얻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작품 형성의 이론적 배경

1) 현대미술(現代美術)에서의 반복행위

미술사상 형태를 반복(反復)하는 방법은 순수미술(純粹美術)보다는 모자이크나 직물문양과 같은 장식미술(裝飾美術)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회화나 조각에 있어서 구성의 목표는 비례나 대비의 법칙에 근거한 변화와 조화에 있었으며, 동일형태를 반복하는 것은 단조로운 구성으로서 오히려 회피되어 왔다. 순수미술에서 반복의 방법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용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20세기의 현대미술에서는 반복성이 주목할 만한 형상이 되었으며, 주제와 부주제격의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에 동등한 이미지의 반복으로 각각의 이미지들이 동등한 조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¹⁾

형태의 반복은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 화면에 리듬감 또는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지된 화면에 시간적 요소를 개입시킨다. 동시에 화면이 외부의 공간으로 무한히 지속될 것 같은 확장효과를 가져온다. 반복적 형태는 화면의 표면을 따라 시각을 이동하게 하여 그림의 평면성을 주지시키는 역할도 한다. 한편, 심리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제작자나 보는 이로 하여금 신체적, 시각적 반복행위를 통해 명상 또는 무아의 경지에 접근하게 한다. 또한 구상적인 형태를 반복 하는 경우에는 형태가 가진 메시지를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세기 미술에서는 다양한 경향을 통해서 같은 효과들이 추구되어 왔다. 미래파(未來派)에서는 움직이는 사물의 연속적 모습을 재현하기

1) 반복적 행위를 통한 내면적 자아의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대학원, 2002, 홍지연)

위하여, 옵아트(Optical art)²⁾에서는 시각적 착시효과를 위하여, 폴록(Pollock, Paul Jackson, 1912~1956)이나 토비와 같은 추상표현주의(抽象表現主義)³⁾ 작가들은 자발적인 행위의 궤적으로서, 팝아트(Pop Art)⁴⁾나 누 부레알리즘(Nouveau Realism)⁵⁾의 경우에는 대량소비사회의 일면을 드러내는 증후로서, 그리고 미니멀아트(Minimalism)⁶⁾나 색면추상 작가들은 작품의 물질성과 평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현대미술에서 형태 반복의 방법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1970년 대 초 이후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가마다 다양한 의도와 방법을 보이는데 그것을 형태상 반복적행위, 비정형 또는 기하적형태의 반복, 구상적 형태의 반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반복의 방법이 올 오버(all-over)의 화면을 통해 전통적인 구성의 개념에 대항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면, 우리나라의 반복 작업은 오히려 서구의 영향을 극복하고 우리 특유의 것을 구축하려는,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전통의 맥을 계승하려는 의도가 기반이 된 경우가 많다.⁷⁾

예술작품이 ‘인간정서의 상징화’라고 한다면, 행위가 주는 감동은 규칙이나 기준을 초월한다. 평면구성에서 반복행위로 활동한 미술가들은 직관을 바탕으로 이뤄져 새로운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이라 하겠다.

반복의 방법은 작가마다 의도가 다르고 기법적인 표현과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크게는 반복적(反復的) 행위(行爲)자체를 중시하는 작가와 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效果)가 중시되는 작가로 구분할 수 있

2) 옵 아트 - 20세기 중엽에 국제전을 떠났던 기하학적인 비구상 계열의 미술

3) 추상표현주의 - 194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광범위한 회화운동

4) 팝 아트 - 1950년대 후반부터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예술현상

5) 누부레알리즘주의 - 1960년대 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유럽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의 전위 미술운동

6) 미니멀아트 - 1960년대 말 주로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된 시각예술과 음악분야의 운동

7) 한국현대 미술에 나타나는 형태반복의 다양한 방법과 의미, 윤난지, 1992

다.

그중 본인 작품에 영향을 끼친 작가로 현대미술에서 반복의 형태를 취한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 도판1,2,3)은 자신의 작품을 미국의 물질문화와 연결시켜 대중문화 화 했다.

워홀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마릴린 먼로를 손꼽을 수 있으며, 그 작품에서 복제의 의미는 기계에서의 대량생산과 같은 의미를 담아 이를 회화의 반복적 형식화로 탄생시킨 것이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았다는 점에서 본인 작품의 관심분야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으며, 본연구자는 작품의 표현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성을 중시한 새로운 이미지로의 재해석으로,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구상적인 면에서는 순수미술을 반복적 형식으로 나타내 거기에서 오는 표현의 자율성을 추구하여 붓을 이용한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나타내었다는 점에서는 워홀과는 다른 본연구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림은 그 작가의 인생에 대한 이해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만의 인생관과 개성으로 작품을 완성하여 회화의 한 표현방법으로 정립시키고, 미술의 독특한 화풍을 창조한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반복적 표현방식이 있지만, 본연구자는 작품에 나타냄에 있어 자신만의 인생관과 개성으로 정형화된 반복형식의 작품이 아닌, 개성이 묻어있는 형태를 완성하여 독특한 표현방법으로서 새로운 반복적 기법을 정립시키고, 발전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2) 시각과 반복행위의 관계

미술에서 반복의 의미는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형태반복(形態反復)은 모호한 공간감과 통일성, 그리고 화면을 초월한 무한한 확장성을 통하여 작가의 의도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타내어졌다.

이러한 반복 작업에는 하나의 행위가 따르는데, 그것은 ‘보다’라는 시각의 반응이다. 눈이 한정된 물체만을 보지 않기에 눈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에만 반응하고 움직여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시각의 기능은 중요하다.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눈은 다양한 작품들을 보도록 도와주고 그로 하여금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유발(誘發)하는 통로의 기능도 한다. 시각은 다른 감각들에 비해 특수하다. 다른 감각들이 하나의 감각만을 인지하는데 비해 시각은 다감각(多感覺)적이기 때문에 눈을 통하여 대상의 색과 형태뿐만 아니라 질감(質感)과 중량(重量), 온도(溫度)등의 다양한 특성을 감지(感知)하게 된다. 그것은 시각이 여러 감각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게 되며 또한 그런 기억의 축적(蓄積)으로 하여금 확장(擴張)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시각이 대상을 투사한다고 하여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 눈이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백이면 백 모든 이가 같은 것을 본다고 할 수 없다. 본다는 것은 실재(實在)에 형상과 의미를 순전히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⁸⁾⁹⁾

그러기에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본인의 사고력에서 재구성(再構成)되어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각의 작용이

8) 미술과 시지각,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역, 홍성신서, 1981

9) 시각과 정신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이미지 표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대 대학원, 2006, 이고은)

다.

본연구자는 이러한 시각작용을 대인과의 관계들 속에서의 나름의 객관화에 개성을 접목시켜 특별한 이미지화로 형상화하였다. 의식 속에서 자리 잡힌 형상들은 반복이라는 행위를 통해 또 한번 본인의 의도에 의해 작품형식이 재수정되며, 이것은 다시 감상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각은 거울에 반사되듯이 대상을 투영하는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와 판단은 본인의 의도, 즉 개성과 상상의 개입이 잘 어우러져 나타내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에 의한 이미지 재구성과 반복행위는 본연구자의 주관적 시점에서 대상을 만들어내고 의식적으로 반복표현 함으로서 그 이미지들의 복제들이 나란히 화면위에 열거됨으로서 무한한 확장감과 통일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3)반복을 이용한 이미지 형상화

형상의 표현은 반드시 현대사회에 와서 등장한 것만은 아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 사용된 기하학적 무늬의 반복에서 그 역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단지 그 당시에 반복된 형상은 단순히 조형적인 리듬감을 나타내기 위한 무늬였다는 점이 현대회화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현대의 반복적 형상은 상상력에 의존한 정형화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지어 지고 단정지어질수 있는 언어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이 가지는 상징성(象徴性)과 심리적(心理的)인 표현, 그리고 상상력(想像力)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연관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¹⁰⁾

반복은 작가가 감상자에게 호소하는 무언(無言)의 언어이다. 이는 또한 다양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며 무한한 상징성(象徴性)을 부여한다. 비록 반복적 행위에 의해 형상화(形象化)된 이미지가 우리의 고정관념(固定觀念)에 근거하여 지배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象徴性)만은 그 어떤 억압(抑壓)으로도 규정지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 바로 일차적인 이미지의 형상화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적인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개성에 기반을 둔 상징성(象徴性)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야말로 이미지를 형상화해 가는데 대한 시발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행위는 심리적(心理的)인 표현의 언어인데, 전체적으로 완성된 작품에서의 연속성(連續性)과 동일성(同一性)을 가진 것에 불과하지만 작가만의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반복성에서 나름의 뜻과 특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심리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10)반복적 행위를 통한 내면적 자아의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대학원, 2002,홍지연)

또 하나 반복적 형상은 상상력의 표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표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이미지 해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패턴의 표현은 상상력이라는 기반 위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한층 정제(精製)된 이미지를 형상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상력의 표현이요, 상징성의 산물이며 심리적인 표현으로서의 완성은 그 어떤 틀로도 정형화시킬 수 없는 다면적(多面的)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재(內在)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추출해 내게 하는 것이다.¹¹⁾

반복을 이용한 이미지 형상화는 그 안에서 시간적인 요소와 본연구자의 사상 및 생각이 반영되어, 행위에서의 균등한 확산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재현한 것이지만 작가적인 감성이라는 사고체계를 거쳐 메시지를 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화면 안에서 사실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그 이미지 형상의 반복표현은 본인 작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본연구자는 사실적인 형태를 통해 개성과 접목시켜 부분적으로 생략한다든가 단순화시키는 조형상의 변형을 거쳐 반복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로서의 작업을 하였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 형상들은 본연구자의 경험인 관계에 의해 단순한 재현적묘사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지닌 형태로서 이들 각각의 구체적인 묘사가 제거되고 독립된 의미를 지닌 상징적 표상들로 간소한 인상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평면공간위의 반복적 행위는 자칫 기계적 몸짓으로 귀착되어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 본연구자의 생각 및 개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형성

11) 패턴을 이용한 이미지 形象化 (석사학위논문, 목원대 대학원, 2006, 최인화)

된 이미지 형상들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섬세한 변화를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2. 기법적 연구

1) 형상(形象)의 재구성화

미술작품은 화가가 그린 흔적이다. 그러나 선을 긋고 대상의 형태(形態)를 포착해서 표현해내는 힘은 단순히 화가 개인의 자율성(自律性)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화가가 속해 있는 삶과 문화의 맥락에서 비롯된다. 미술작품 속에 문화가 전달 체계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즉, 그림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서, 이미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소통은 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이미지를 자연에서의 형상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내면감정을 자기만의 추상화된 기법으로 자유분방하게 화면 위에 쏟아놓으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창적이며, 추상적으로 감정의 세계를 표현한 것을 관람객이 작품과 마주했을 때 작품에 의해 감동을 받는 순간 이루어진다. 이렇게 개인의 실질적인 경험들이 의식적(意識的), 무의식적(無意識的)으로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를 잃지 않으려 마지막 희망을 더하여 본인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이미지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선택한 대상에서 제2의 상(象), 이미지를 포착하여 자신의 조형방법(造形方法)에 따라 그것들을 조합하고 배열하게 된다. 그들에게 전달된 사물, 혹은 그 무엇의 추상적 이미지는 대상 자체와는 달리 작가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질서 하에 새로이 탄생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작가 자신의 표현을 통한 형상의 재구성, 즉 생성(生成)됨을 뜻한다.

형상의 재구성은 지각적 심상으로서, 이미지를 구성하고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미술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작가의 심상에 존재하는 이미지

12) 이미지로 본 서양미술사, 우메다 가즈호, 이영철 역, 시각과 언어, 1994

자체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미술에서 필요로 하고 또 미술적인 언어로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형상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현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체계에서 발상다음에 오게 되며 발상 및 구상에 따라 주제표현, 표현방법, 표현재료에 따라 적절한 이미지로 재구성하게 되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재구성하는가에 따라서 형상의 표현자체가 달라지기도 한다.¹³⁾

본연구자는 여러 가지의 표현방법들 중 아래의 것들에 의미를 두어 작업에 임하였다.

첫째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사물을 떠올린 다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에 의하여 연상되는 이미지를 도출하도록 한다. 형상의 창출과 재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오감의 자극이 중요하나 본인은 시각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사물이 지닌 형태나 색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목적에 맞게 강조하거나 생략, 변형시켜 단순화 시킨 것이다. 명암, 색채, 형태의 단순화를 통하여 형상의 재구성을 꾀할 수 있으며, 형상의 의미 등을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시켜 독특하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형상을 더하거나 빼서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것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을 얻어 표현하였다.

이렇듯 작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계에 존재한 수많은 형상들을 접하고 그 무수한 형상들은 작가의 의식 속에 고착되어 창작경험을 만든다. 이런 모든 경험들은 다시 새로운 형상으로 재구성화 되어 예술 작품에 반영된다. 지각 경험은 사유(思惟)의 근거와 기준이자, 회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미적 대상인 작품도 결국 작가의 창작체험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¹⁴⁾

13)드로잉 기법, 이안 심프슨, 최기득 역, 예경, 1994)

이렇게 다르게 읽히고 감상되는 새로운 이미지는 고정화 된 것이 아니라 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상이 작가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재구성 될 수 있고 한 작품 내에서도 하나의 사실이나 관념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14) 본인의 작품에 있어서 생성된 이미지 ‘되기-찾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대학원, 2005, 최은성)

2)색을 통한 이미지 표현

색채(色彩)는 회화에 있어서 작품에 생명적 호흡을 불어넣는 본질적인 요인이며 조형(造形)요소 가운데 가장 감각적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상징언어 역할을 한다.

작가는 색채를 통해 가장 자기스러운 고유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풍부한 내적 묘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색을 처음 대하였을 때의 물리적(物理的) 인상은 정신적(精神的) 동요로 이어져 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미적 체험을 느끼도록 한다. 색채가 작가 자신의 내적 감동을 대신하여 평면 공간 위에 내적 필연성의 원칙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며 무엇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서 감각과 기억의 상호 관계에 있으면서 거의 의식할 수 없는 연상을 통해 강화된다.¹⁵⁾

본인은 작품에서 대상의 이미지화를 최대의 효과를 위해 색을 반복해서 중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색은 자연에서 얻은 식물염료에 바탕을 두었으며 이는 본인이 나타내고자하는 이미지에 생명력(生命力)을 넣는 행위라 하겠다. 색의 중첩으로 공간에 깊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은 공간을 통일되게 집중시키고 그 화면을 통합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먹으로 심상을 드러내 기운(氣韻)이 드러나도록 농담(濃淡)¹⁶⁾과 발묵(潑墨)¹⁷⁾의 조절이나 방법에 기초를 두어 먹과 담채를 가지고 바탕에 무늬가 새겨진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 독특한 맛을 이끌어 냈다.

본인은 한 화면에서 거의 같은 색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 보완되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작품 전체의 흐름을 이루는 통일감은 먹과 함께 자연적 염료의 사용과 물의 농도에 따른 발색 때

15) 반복적 행위를 통한 내면적 자아의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2002, 홍지연)

16) 색갈이나 명암 따위의 짙음과 옅음

17) 글씨나 그림에서, 먹물이 번져 퍼지게 하는 기법

문이다.

3) 선(線)으로부터의 형상

“기하학에서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예술에서의 선은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하나의 움직이는 점들”로 정의된다.¹⁸⁾원시미술에서 선의 주된 역할은 매우 단순화되고 개념적인 대상에 대한 묘사적인 기능만을 추구하는 시기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선이 선 자체의 내적 표현성과 의미를 부여받는 시기에 이르렀다.

선은 다른 조형요소보다도 창조의 기본요소로서 작가의 내면세계의 흐름에 따라 화면 위에 그 흔적을 남기며 그 자체가 감정 즉 미적 충동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서 가능한 것으로 감정과 정신을 지닌 유기체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화면 속에 드러내며, 시각적인 작용으로만 표현된 요소가 아닌 이상과 가상으로 독립된 심리적 작용을 지닌 정신적 표현요소이다. 선의 심리적 작용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것으로, 선에 의해 표현되는 형태를 심리상태에 따라 확장시키는 인간의 심리적 성향으로부터 발생된다.¹⁹⁾

선의 자유화에 따라 작가는 내면충동과 내면세계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회화작업에 새로운 자율성을 부과한다. 내적 표현요소로서의 선을 이용해 무의식 상태를 극대화시켜 수단을 통하여 자연적 리듬으로 손의 붓질 동작을 조절함으로써 화면에 대한 더 많은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대상의 이미지화를 의식적(意識的)행위로서 선을 표현함과 동시에 반복(反復)행위를 함으로써 집중력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든다. 작업에 있어 선은 자아의 내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사하며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존재의 생명력과, 내면의 욕구를 찾고자 하였다.

18) 조형의 원리, David A. Lauer, 이대일 역, 미진사, 1993

19) 선의 자율성에 의한 공간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1997, 하지희)

본 연구자는 대상을 단순화시킨 개성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형상을 반복
나열함으로서 선이 갖는 질서의 움직임을 느끼고자 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
여진 선은, 강한 주관성이 개입된 자율적인 표현매체이자, 또한 내적 세계
의 발로(發露)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 자체로서의 형태가 아닌 작가의 내적인 움직임에 의해 형(形)
을 재해석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대상의 존재의미를 두어 선으로서 완
결을 지으려는 것으로 붓의 속도와 힘의 조절에 의해 더욱 섬세하고 세심
히 하나하나의 선에 기(氣)를 더한 행위로서의 표현이다.

Ⅲ. 작품분석



(작품 1) 이미지 읽기 <Read imagery in my mind>

(작품 1) 이미지 읽기 - 1 <Read imagery in my mind>

* 크기: 130 x 162cm

* 재료: 장지, 혼합재료

* 제작년도: 2006

이 작품은 본인의 경험과 타인의 여러 경험들이 서로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무한한 감성과 자아를 상상력으로 예술작품을 실현할 수는 없는지 고민하던 시기였다.

자아를 ‘나 자신’이라는 한정된 틀을 만들지 말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하나 같지만, 조금씩 다른 자아를 표현하고자 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즉, 서로 얽혀져 있는 관계 속에 본인의 시각에서 타인을 망상하는 시점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 표현에 있어 과감한 생략과 단순미를 이용하여 시작된 반복 작업은 점차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을 찾게 되어 조금씩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작업의 의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의지로 이끌어간 반복행위와 관계 속에서 타인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여 관계된 타인의 모습을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는데 있다.

위와 같은 의미로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본질이 아닌 의식이라는 부분으로 다가갓기에 재료에 있어서도 좀 더 편안히 접근할 수 있는 자연에서 얻은 것들을 위주로 작업하였다.



(작품 2) 이미지 읽기 <Read imagery in my mind>

(작품 2) 이미지 읽기 - 2 <Read imagery in my mind>

*크기: 90 x 130cm

*재료: 장지, 혼합재료

*제작년도: 2006

이 작품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보여 지는 TV매체의 관계 속에서 읽혀지는 자아의 방향성에 관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급변하는 유행에 휘말려 우리는 개성이라는 것을 읽고 마치 다같이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만드는 매스미디어(mass media)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유행에 매달려 하루라도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입에 올리지 않으면 무리 안에서 퇴장당하고 말 것 이라는 강압적인 표현으로 나와 타인이 닮아가고, 똑같은 것만을 보고, 그 이상은 보려고도 바라지도 않는 것을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강한 듯 센 듯 보이지만 자아상실에서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나타나 있고, 또 그것마저 짓누르듯 한 선의 반복행위는 우리의 현 상황을 풀어낸 것이다.

제한된 틀과 그 안에 빼곡히 갇힌 사람들, 그리고 한정된 것만을 바라보고, 바라고, 좇으려는 것들을 반복행위를 통해 그것들이 다 허상이고 순간의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담았으며, 먹선의 반복은 매스미디어적인 느낌과 본인 스스로의 개성을 잊어가는 현세대의 허상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3) 이미지 읽기 <Read imagery in my mind>

(작품 3) 이미지 읽기 - 3 <Read imagery in mind>

*크기: 130 x 162cm

*재료: 장지, 혼합재료

*제작년도: 2007

(작품 3)은 (작품 1)과 연결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자아속의 그를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만남 속의 자아발견은, 살아간다는 자체만으로도 계속되는 반복의 행위이다. 그러한 여러 만남들 중 연인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다. 둘만의 세상과 추억, 그 속에 자리 잡는 이미지들은 점차 '나와' 되어 간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여러 느낌들로 하여 작업을 하며 그러던 중 자연스레 나온 색깔들은 그때의 그 느낌을 잘 표현해 준다.

색(色)은 단순히 그 자체의 의미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즉, 관계 속에서 본인이 그들에게 느끼거나 바라는 이상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작품은 무의식중에 연인에게 항상 바라는 '욕심'을 이상화하여 커피의 갈색과 떡의 검정에 중점을 두어 가려진 듯 하기도하고, 보여 지는 듯하기도 한 형상을 담았다.



(작품 4) 이미지 읽기 <Read imagery in my mind>

(작품 4) 이미지 읽기 - 4 <Read imagery in mind>

*크기: 130 x 162cm

*재료: 장지, 혼합재료

*제작년도: 2007

작업을 하기에 앞서 형상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함에 있어 원근감을 없애 평면화 시켰다. 본인 주위의 이야기에 상징성을 넣어 풀어감으로써 상상력을 모태로 개성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이 작품은 우리들의 욕망이자 이상이며 미의 기준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작업하였다. 세월이 바뀌어도 그 시대 미의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미스코리아라 확신한다. 하지만, 시대가 낳은 허망함인지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잃어 가면서까지 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시국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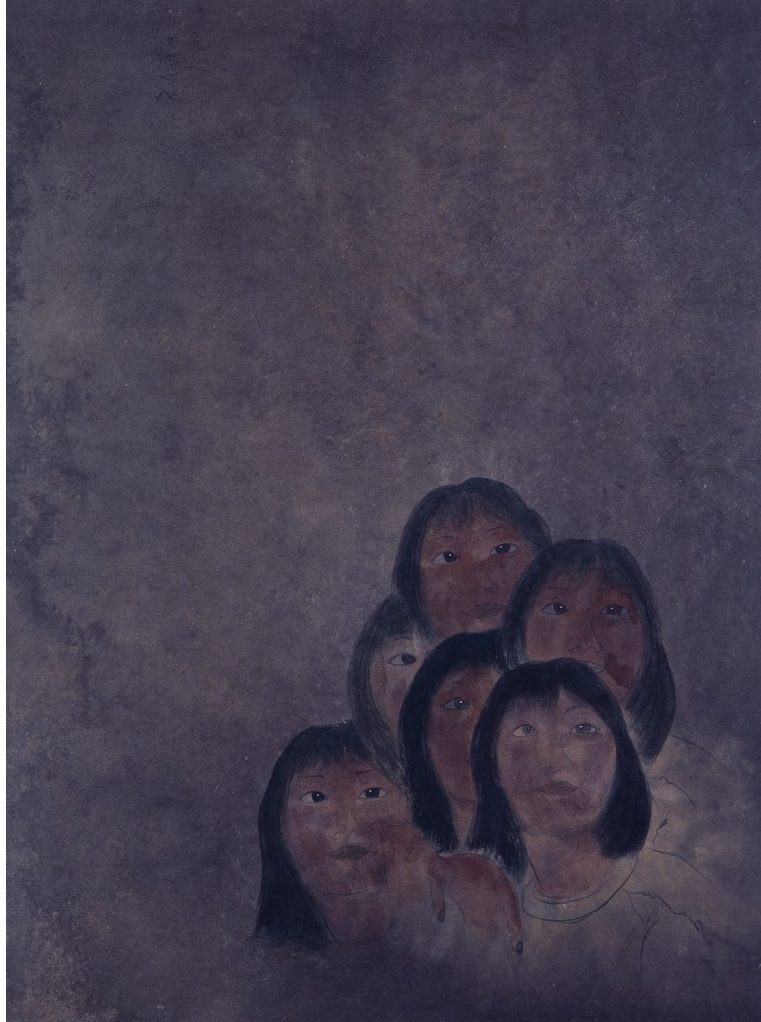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풍조를 바탕으로 본연구자는 ‘현재의 아름다움이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라는 남다른 시각으로 풀어보았다.

육체미에 대한 선망은 인류의 영원한 욕망이지만 성형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빼뜰어진 마음’으로 정형화된 이목구비의 ‘미’로 변해간다. 그 시대 선망의 대상인 미스코리아의 긴 생머리는 단발에 부스스한 사자머리로 유행이 바뀌고 너무나 많은 성형으로 결국에는 원숭이와 비슷한 얼굴이 되어버린 똑같은 얼굴의 사람들이 판박이 찍어내듯 늘어나지만, 또 그 중에서 한 명이 당대의 미녀로 추앙받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본 여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맞춰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 안 되지만 되는 블랙 코메디 같은 뜻을 담았다.

이것은 시각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즉 눈으로 읽혀지지 않는 상징,

은유, 암시적인 의미체계로 내포되어 본연구자의 생각을 반영하였다.

기법은 동양화한지의 곱고 얇은 특징에 선을 반복하여 그을 때마다 시간성을 더 확연히 나타내 주었다. 밑의 선 위에 새로운 선이 중첩되어도 새로운 것에 묻히긴 하지만 희미하게 비치며 나름대로의 자기존재를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희망의 뜻으로 더하였다.



(작품 5) 이미지 읽기 <Read imagery in my mind>

(작품 5) 이미지 읽기 - 5 <Read imagery in mind>

*크기: 90 x 130cm

*재료: 장지, 혼합재료

*제작년도: 2007

지금까지의 작품분석들을 보면 모두가 본인의 생활에서 얻어지는 것들과의 연관으로 해석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관계들 속의 자아표현이라는 작업의 기본 뿌리가 들어있다.

관계들 속의 자아 즉 본연구자의 삶의 방향에서 이루어진 사상이 일상적인 것들과의 연결로 재해석하여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고3수험생들의 이상과 방향성이다. 본인 역시 이 시기를 거쳤기에 거기에 따른 추억을 회상하며 표현하였다. 그들의 보편화된 생각, 즉 개개인의 특성으로 독자적인 존재로 서고 싶어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목표로 인해 다른 것을 생각하기는 아직은 낯설은 미성숙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화면을 어둡게 칠한 바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답답한 내면과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그들을 나타내지만 그 속에서 내면을 쌓아가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멋진 미래를 꿈꾸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한 자아의식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작품 6) 이미지 읽기 <Read imagery in my mind>

(작품 6) 이미지 읽기 - 6 <Read imagery in mind>

*크기: 20 x 100cm

*재료: 비단, 혼합재료

*제작년도: 2007

이 작품의 구도는 소품을 이용한 긴 수직적인 화폭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이 주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본인은 그 이유를 선이라는 기본적인 화면요소와 함께 동계열의 색상들을 사용하고 또 그 색상들의 바닥에 얼굴을 반복적으로 그린 효과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이 작품은 본연구자의 자신의 모습을 또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본 것으로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시점에서 자아를 바라보고 찾았다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넓은 세상에 '자신'의 자리는 크지 않지만 그 속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노력과 젊기에 세상을 빼뜰게 바라볼 수 있다는 특권,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심리적인 공간 속의 한 없이 작은 '나'를 보는 이들에게도 전달해 주고자 함이었다.

무수히 반복해 그은 선들은 중첩으로서가 아닌 개채로서의 반복으로 습관적인 모습의 자아로 변화를 기피한 것에 대한 무의식 속에 내재한 반성의 의미로 표현된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 적응되어 살아가면서 정작 자아 내면의 울림이나 반성에는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내면적 소통의 공간은 닫혀져 더욱 더 독립적이 되어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자아 내면으로의 관심은 없어진 듯 하다. 이러한 무관심해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그림자

와 같은 내면의 자아를 고은 비단에다 표현하였다.

화면전체를 뻑뻑이 채워 넣음으로서 여백의 미를 없애는 대신 선의 반복 표현으로 작품에서 오는 공간의 딱딱함과 수직의 긴장감을 정화하여 부드럽게 느껴지게 표현한 것이다.

IV. 결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고도화된 발전과 대량생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보와 대중매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서 쏟아져 나오는 잡다한 문명의 소산들이 뿜어내는 이미지의 반복이 우리의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본인 작품에서의 반복행위는 실생활에서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본인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나름의 의미들로 재해석하여 얻은 결과물로 새로운 이미지 읽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관계에서 얻어진 대상의 이미지들을 계속되는 반복적 행위로 본연구자의 개성을 담은 스타일로 표현하여 통일감과 확장효과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로서 반복을 형상화하고 새로운 주관적 이미지를 만들어 본인 작품을 창출하였다.

본연구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형상의 재해석이다. 주위의 관계에서 오는 잠재되어 있는 본인 의식의 영역까지 조절하여, 개성을 내포한 재해석으로 자신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사고의 표현으로 나타내어진다.

둘째는 반복 효과이다. 전통 동양화에서는 다소 생소한 회화 기법인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효과와 표현의 자율성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위의 두 가지의 특징은 자신이 앞으로의 작품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끊임없는 연구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인만의 사고(思考)의 틀에 갇혀서 현실답보적인 활동만을 하는데 안주하

지 않고, 앞으로 본연구자의 작업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성숙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윤난지, <한국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형태반복의 다양한 방법과 의미>, 1992
우메다 가즈호, <이미지로 본 서양미술사>, 이영철 역, 시각과 언어, 1994
David A. Lauer,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미진사, 1993
Ian Simpson, <드로잉 기법>, 최기득 역, 예경, 1994
K. Harris, <현대미술 - 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 최연희 역, 서광사, 1998
Rudolph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홍성신서, 1981

학위 논문

- 이고은, “시각과 정신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이미지 표현”,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대 대학원, 2006
최은성, “본인의 작품에 있어서 생성된 이미지 ‘되기-찾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 대학원, 2005
최인희, “패턴을 이용한 이미지 形象化”,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 대학원, 2006
홍지연, “반복적 행위를 통한 내면적 자아의 표현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2002
하지희, “선의 자율성에 의한 공간 표현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1997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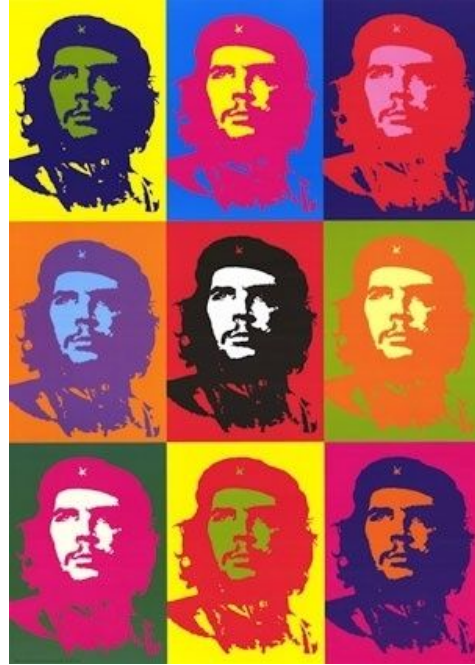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미학 미술학 사전>, 미진사, 1983

참 고 도 판



(도판 1)앤디워홀, 마릴린 먼로



(도판 2)앤디워홀, 게바라



(도판 3)앤디워홀, 두 명의 마릴린, 1962

도 판 목 차

(도판 1)앤디워홀, 마릴린 먼로, 1967

(도판 2)앤디워홀, 게바라

(도판 3)앤디워홀, 두명의 마릴린, 1962

ABSTRACT

The repetition effective research due to an image recomposition

- Focused on my artwork -

Yang Ho-Jung

Advised by prof. Park Sun-Hee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an artist's spiritual product, art can be seen as the fusion of the spiritual sensibility as human inner world in its essence and the external matter surrounding it which is projected through a work. In any form, a work is the language which gives birth to an artist's subjective world view. The process of gaining an answer to his or her own question raised in his or her life which is expressed in a work through the language becomes a link for the communication with people and simultaneously allows them to find their own possibilities.

Through art, an artist expresses himself or herself and his or her life,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so on, makes them his or her

belongings and reflects the various experiences derived from his or her life. He or she wants to express not only his or her own realistic emotion but also the whole emotion from the human relations recognized by him or her. He or she absorbs the world existing interdependently out of the body according to sensuous laws of individuality and produces it into an image.

In a work of art, production means a series of processes ranging from an optical illusion through generation into the inside to expression.

When it is important to communicate into the inside by vision, we have reached the point of time when we are led only by the external skin of a form rather than its essence pressed with our repetitive daily lives.

In a disconnected situation, an artist gives birth to a world view in various and creative ways 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subjective communication with the unlimited topics of conversation obtained from the relations in his or her own life.

In the perspective for the limited relations, this researcher has had primary things which are understood by external acts rediscovered as 'images', that is, developed into perfection by repeating secondary development through her internal subjective subconsciousness.

The artist producing a work with his or her clear subjective interpretation by catching a new meaning through the sympathy with himself or herself in the external world is seen as his or her beginning

with the art including 'individuality'.

This researcher did not paint a form oriented toward the object as it was in various and ambiguous relations. Still, she mixed the impression as it appears to her eyes not with the form in reality but with herself, had it born again as a form of containing individuality and expressed it by new harmony in a repeated form.

I wanted to show the symbolic meaning of existence by drawing popular and daily things into the domain of pure art and continuing to duplicate them and by expressing objects repeatedly and concisely. Namely, I found by my perspective the individualities of the things obtained from the relations in my daily life and formalized them as the existence only with one image. I repeatedly expressed the image produced and symbolized like it.

I studied the internal perspective for a form and the repeated act as conscious expression by a process of achieving a peculiar world by finding the material for a work in the relations with surrounding things contacted commonly by me, reinterpreting it with my own feeling, working on it repeatedly and finding out another meaning for it from a small daily life.